

# ‘취업 강자’ 서영대, 광주 취업률 1위

졸업자 취업률 2년 연속 최상위권  
2025년 75.6%...보건·의료 강점

서영대학교가 광주 소재 대학 중 또다시 졸업자 취업률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대학정보공시(2024~2025)에 따르면 졸업자 500명 이상을 배출한 전문대학·일반대학 중 서영대는 2년 연속 광주 지역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서영대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최상위권 취업률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2023년 74.9%, 2024년 76.4%, 2025년 75.6%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취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취업 지표를 넘어 학과별 특성화 전략, 교수진의 1:1 밀착 지도,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의 성실한 학업 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지도교수 중심의 개인별 취업 관리,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학생과 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은 서영대 취업 지원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물리치료과는 2024년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치위생과·임상병리과 등 보건계열 학과는 지역 보건·의료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높은 취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 취업 지원에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드러진 취업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서영대. 사진은 캠퍼스 정문. 〈서영대 제공〉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실무 중심 교육은 다양한 전공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AI미래자동차과, 뷰티미용과, 전기과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AI미래자동차과는 자동차정비산업 기사 자격 취득률을 매년 90% 이상, 뷰티미용과는 미용사(헤어) 국가자격 3년 연속 전원 취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아자동차 산학인턴 협약, 글로벌모터스 상생협력, 현대자동차 상용기술 인력 양성 협약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 대회’, ‘국제뷰티아티스트 콘테스트’, 각종 요리·제과 경연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며 실무

중심 교육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서영대의 이같은 성과는 대학 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생태계가 맞물린 ‘산학 밀착형 성공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 학문 분야로 확산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무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영대 관계자는 “이번 취업률 성과는 학생들의 성실함과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취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미래성장 지원 ‘글로컬 특수교육’ 실현 박차

국제교류·현장 중심 프로그램 추진

전남교육청이 장애학생의 미래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 특수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교류와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의 진로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교육 흐름과 연계한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해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특수교육의 글로벌 연계 기반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부터 본격화했다.

박람회에서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이하 TWU) 부총장과 만나 국제교류 협력을 약속했고 이 협력으로 지난해 2월 TWU와 브리티쉬 컬럼비아 크리스천 아카데미(이하 BCCA)를 방문해 교실혁명 선도 특수교사 국외연수를 운영했다. 이후 TWU 사범대학장 라라 래그풋 박사, TWU 부총장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BCCA와 함께 ‘2030 교실 선도교사 국제교류’를 운영하며 미래형 교실 환경, 개별화 교육 전략, 장애학생 참여 중심 수업 사례



캐나다 TWU 사범대학장 라라 래그풋 교수, 캐롤리안 크리스찬 씬 부교수, EA 프로그램 총괄담당자 조이스 조교수가 광양햇살학교를 찾아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등을 주제로 공동 논의와 수업 나눔이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 논의의 장도 마련했다.

지난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특수교육 국제세미나를 열고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사범대학장 라라 래그풋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특수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나가노현 특수교육 담당자와의 국제교류를 하

고 양국에서 각각 세 개 특수학교를 선정해 나가노 현과 듯토리현 소재 특수학교와 교사 간 원격교류 및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류는 문화 이해를 넓히고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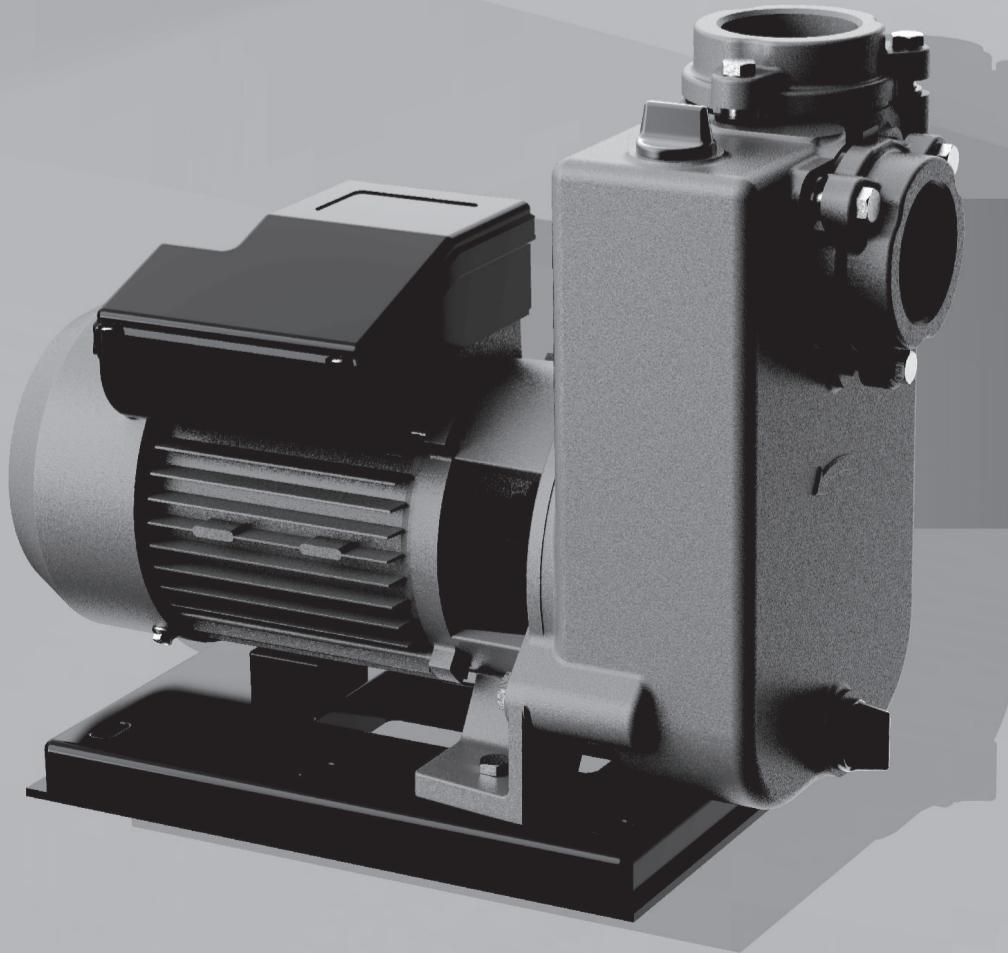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이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 광주대, 반려동물 보건·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사진 왼쪽)는 최근 학교 행정관 6층 접견실에서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대표원장 양하영)와 반려동물 보건과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과 양하영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최혁 반려동물보건사업과 학과장이 참석해 산학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수·교류·현장실습·취업 연계 등 인적 교류, 장비 및 시설 등 물적 자원의 상호 활용,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기타 반려동물 산업 및 교육 분야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는 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365일 24시간 운영 동물병원으로, 호남권 최대 규모인 약 300평의 시설을 갖춘 2차 동물의료 기관이다. 호남권 내 최다 석·박사급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과·외과·영상의학과 등 각 진료과 전공의가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치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심장·혈관계 진료, 종양 진료,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안과·치과, 피부·내분비 진료, 고양이 진료 등 다양한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진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의료기관의 임상 전문성이 결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하영 대표원장은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가 축적해온 임상 경험과 24시간 응급·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교육 현장과 연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비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송원대, ‘시니어놀이지도사’ 양성 교육 성료

### RISE 도심캠퍼스 리빙랩 연계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RISE 사업단(단장 김호연)은 공하나협동조합(이사장 정선영)과 공동으로 운영한 ‘마을활동가(시니어놀이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2024년 1월 20일 개최했다. 주최자는 스포츠·문화·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노인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팝업북 구조 이해 및 제작 실습, 이야기 구성 요소를 적용한 창작 활동, 연령별 놀이 및 만들기 확장 활동, 창작동화 구연 교육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RISE 사업 단위 과제 ‘III-①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의 하나로 추진된 대학·지역 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송원대와 광주 지역 기관 협력기관인 공하나협동조합이 함께 기획·운영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시니어 세대가 놀이·여가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 마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광주시 남구 방림2동 시니어센터와 송원

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남구 지역 주민 은퇴자 및 50세 이상 시니어, 송원대학교 학생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팝업북 구조 이해 및 제작 실습, 이야기 구성 요소를 적용한 창작 활동, 연령별 놀이 및 만들기 확장 활동, 창작동화 구연 교육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강의 중심이 아닌, 참여자가 직접 콘텐츠

를 제작하고 시연하는 실천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돼 높은 교육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송원대 김호연 RISE 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대학과 지역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한 도심 캠퍼스 리빙랩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다”라며 “시니어 세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